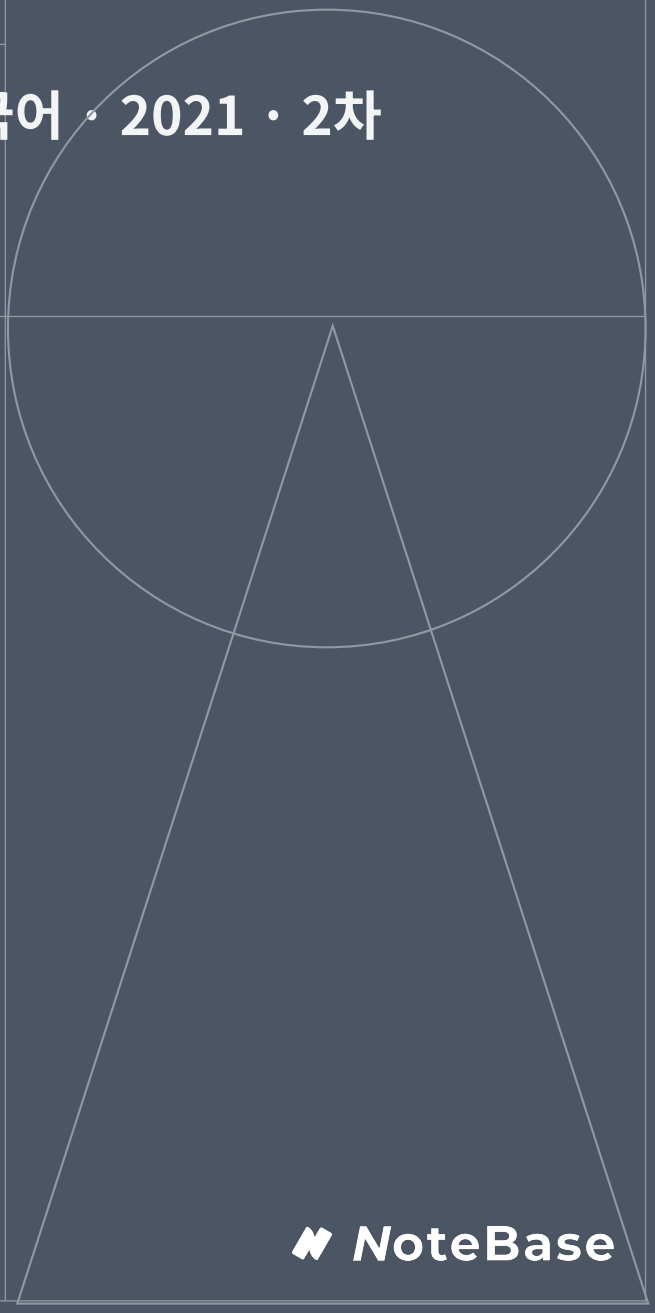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1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1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21 · 2차

문 1. 다음 중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② 관형어와 부사어는 수식 성분이며 주성분으로 분류된다.

③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에 비하여 모음 조화의 예외가 많지 않았다.

④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은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 11개가 인정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문법적 특성, 문장 성분의 분류,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 체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사와 어미: 조사와 어미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 등에 결합하여 문법적 관계와 기능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이다.
문장 성분의 분류: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는 주성분이고, 관형어·부사어는 다른 성분을 꾸미는 부속 성분이다.
모음 조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으로,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보다 규칙적으로 지켜졌다.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 학교 문법에서는 ㅑ, ㅕ, ㅛ, ㅠ, ㅘ, ㅙ, ㅝ, ㅞ, ㅢ, ㅒ, ㅖ의 11개를 인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여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와 문법 기능을 나타낸다.
② X — 틀린 부분은 '주성분으로 분류된다'이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다른 문장 성분을 꾸미는 수식 기능을 하지만, 문장 성분의 분류상 주성분이 아니라 부속 성분이다.
③ O —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잘 지켜졌으므로 모음 조화의 예외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④ O —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는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은 제시된 11개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수식 성분'이라는 설명이 맞다는 이유로 문장 전체를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기능이 수식이라는 사실과 문장 성분의 분류가 부속 성분이라는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성분의 분류를 물으면 주성분은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 부속 성분은 관형어·부사어, 독립 성분은 독립어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관형어·부사어는 꾸미는 성분, 곧 부속 성분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빈 속은 칼로 에이는 것처럼 쓰렸다.

② 그녀는 프랑스어를 혼자서 깨쳤다.

③ 게으름을 피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④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을 꼬박 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사의 기본형과 올바른 활용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깨치다’는 ‘일의 이치나 원리 따위를 깨달아 알다’라는 뜻의 동사이며, 과거형은 ‘깨치었다’가 줄어든 ‘깨쳤다’이다.
‘에다’는 칼 따위로 도려내듯 베다는 뜻이므로 ‘에는’으로 활용한다. ‘피우다’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게 한다는 뜻으로 ‘게으름을 피우다’처럼 쓰며, ‘새우다’는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지내다는 뜻으로 ‘밤을 새우다’처럼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에이는’이다. ‘에다’의 관형형인 ‘에는’으로 고쳐 ‘빈 속은 칼로 에는 것처럼 쓰렸다’라고 해야 한다.

② O
‘깨쳤다’는 ‘깨치다’의 어간 ‘깨치-’에 과거 시제 어미 ‘-었-’이 결합한 ‘깨치었다’가 줄어든 말이므로 표기가 올바르다.

③ X
틀린 표현은 ‘게으름을 피지’이다. ‘게으름’처럼 좋지 않은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낸다는 뜻에는 ‘피우다’를 쓰므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로 고쳐야 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밤을 꼬박 샜다’이다. ‘새다’는 ‘밤이 새다’처럼 밤이 지나 날이 밝는다는 뜻이고, 목적어 ‘밤을’과 함께 쓸 때는 사동사 ‘새우다’를 써서 ‘밤을 꼬박 새웠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발음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에이는', '피지', '샜다'를 그대로 적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문장에 필요한 뜻과 서술어의 기본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활용형을 기본형으로 되돌린 뒤 문장 성분과 뜻을 확인한다. '에다→에는', '깨치다→깨쳤다', '피우다→피우지', '밤을 새우다→밤을 새웠다'처럼 기본형에서 실제 활용 과정을 점검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칼로 에는 아픔, 이치를 깨쳤다, 게으름을 피우다, 밤을 새우다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3.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의 표현이 가장 올바른 것은?

<보기>
우리는 언어생활에서 문법요소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많다. 높임법에서 높이지 않을 대상을 높이는 경우, 시제 표현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소를 잘못 쓴 경우, 피동 표현에서 이중 피동 형태를 사용한 경우, 사동 표현에서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을 쓴 경우가 대표적이다.

①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시는구나.
②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벌써 갔는 모양이다.
③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소개시켜 줄래.
④ 저는 그 말씀에 그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높임법, 시제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이 문맥에 맞게 쓰였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높임 표현은 실제로 높여야 할 주체나 객체를 알맞게 높이는 표현이다. 시제 표현은 동작이 일어난 시간에 맞는 형태를 사용한다. 피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뜻을 나타내며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겹쳐 쓰지 않는다. 사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뜻이 있을 때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께서'와 '하시는구나'는 말하는 행위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인 표현이므로 알맞다. 인용절의 '너'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오라고'도 자연스럽다.
② X — '갔는'은 과거의 동작을 나타내는 관형 표현으로 알맞지 않다.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벌써 간 모양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소개시켜'는 남에게 소개하게 한다는 사동의 뜻이 필요하지 않은 문맥에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쓴 것이다.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소개해 줄래.'로 고쳐야 한다.
④ X — '생각되어지지'는 '생각되다'에 '-어지다'를 다시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능동 표현으로 '저는 그 말씀에 대해 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하시는구나'를 '너'에 대한 높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하시다'의 주체는 선생님이다. ②는 '갔-'이 과거를 나타낸다는 이유만으로 '갔는'을 허용하면 안 되며, ③과 ④는 형태가 길수록 공손하거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어마다 그 행동의 주체와 높임 대상을 먼저 찾고, 관형형의 시제가 맞는지 확인한다. 이어 '-시키다'에 실제 사동 의미가 있는지, '-되다'와 '-어지다' 같은 피동 형식이 겹치지 않았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높임은 대상에 맞게, 과거 관형형은 '간', 소개는 '소개하다', 피동은 한 번만 쓴다.

NoteBase

문 4. 다음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이 적용된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① 이 지역에 내래월(來來月)까지 비가 온다고 한다.
② 그의 이론은 현실적으로 볼 때 비논리적(非論理的)이다.
③ 멀리 격리되어 몇 달 동안 중노동(重勞動)에 처함을 어찌 면하겠나?
④ 육십을 갓 넘겼는데 그의 얼굴은 칠십의 상노인(上老人)같이 늙어 보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은 말에서 뒷말의 첫소리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에서는 뒷말도 독립된 단어의 첫머리처럼 보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래월(來月)'이 뒤에 올 때에는 '내월'로 적어 '내내월(來來月)'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내래월'의 '래월'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표기이다. '내래월'이 아니라 '내내월'로 적는다.
② O — '비(非)' 뒤의 '론리적(論理的)'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비논리적'으로 적은 것이다.
③ O — '중(重)' 뒤의 '로동(勞動)'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중노동'으로 적은 것이다.
④ O — '상(上)' 뒤의 '로인(老人)'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상노인'으로 적은 것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첫 음절 '내'만 보고 두음법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접두사처럼 쓰인 앞 한자가 아니라 뒷말 '래월'의 첫소리를 확인해야 하므로 '내래월'은 '내내월'로 고쳐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어를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뒷말'로 나눈 뒤, 뒷말의 첫 음절이 단어 첫머리의 두음법칙에 맞게 적혔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앞 한자를 떼고 뒷말의 첫소리를 본다: 래월→내월, 론리적→논리적, 로동→노동, 로인→노인.

NoteBase

문 5. 다음 <보기>의 ㉠~㉣의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바퀴가 빨리 돈다.
㉡ 모은이가 복숭아를 집었다.
㉢ 목걸이가 주아에게 어울린다.
㉣ 세은이가 노래를 예쁘게 부른다.

① ㉠: '…가 돌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 '…가…을 집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 '…가…에게 어울리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 '…가…를…게 부르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서술어가 문장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이다. 단순히 문장에 나타난 모든 성분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성분을 뺐을 때 서술어의 의미가 온전하게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관형어나 부사어가 문장에 나타나더라도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수식 성분이면 자릿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의 '돌다'는 '바퀴가 돌다'처럼 주어 하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빨리'는 '돌다'를 꾸미는 선택적 부사어이므로 자릿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O — ㉡의 '집다'는 '모은이가 복숭아를 집다'처럼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O — ㉢의 '어울리다'는 '목걸이가 주아에게 어울리다'처럼 주어와 '에게'가 붙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세 자리 서술어'이다. ㉣의 '부르다'는 '세은이가 노래를 부르다'처럼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예쁘게'는 '부르다'를 꾸미는 선택적 부사어이므로 올바르게는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에서 '세은이가', '노래를', '예쁘게'라는 세 성분이 서술어 앞에 나타난다는 이유로 모두 자릿수에 포함하기 쉽다. 그러나 '예쁘게'를 빼도 '세은이가 노래를 부른다'가 온전하게 성립하므로 '예쁘게'는 필수 성분이 아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어와 함께 쓰인 성분을 하나씩 생략해 본 뒤, 문장의 핵심 의미와 문법적 완전성이 무너지는 성분만 센다.
서술어를 단순히 꾸미는 선택적 부사어는 자릿수에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서술어 자릿수는 문장에 보이는 성분의 수가 아니라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성분의 수이다.
‘주어+목적어+선택적 부사어’의 서술어는 두 자리이다.

NoteBase

문 6.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싀·미 기·픈·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씨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용비어천가』 제2장-

① 형용사는 '그츨씨'이다.
② 조사는 '이', '은', '애'이다.
③ 명사는 '싐', '믈', 'ᄀᆞᄆᆞᆯ'이다.
④ 모두 9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세 국어 문장에서 체언과 조사, 용언의 활용형을 구분하고 단어의 수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중세 국어에서도 조사는 하나의 단어로 세며,
어간과 어미는 각각 따로 세지 않고 활용형 전체를 한 단어로 센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그츨씨’는 ‘그치다’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의 활용형이므로 형용사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형용사는 그츨씨이다’이며, 올바르게는 ‘형용사는 기픈이다’이다.

② O
‘이’, ‘은’, ‘애’는 각각 체언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표기상 이어 적힌 ‘므른’과 ‘그므래’에서도 ‘믈+은’, ‘그믈+애’로 분석된다.

③ O
‘심’, ‘믈’, ‘그믈’은 각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④ O
밑줄 친 부분은 ‘심/이/기픈/믈/은/그믈/애/아니/그츨씨’로 분석되므로 모두 9개의 단어로 구성된다. 조사도 단어로 세지만,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분리하여 세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그츨씨’가 상태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로 형용사로 판단하거나, 조사 ‘이·은·애’를 단어 수에서 빼는 것이 함정이다. ‘그츨씨’의 기본 의미는 ‘그치다’이므로 동사이고, 조사는 독립된 품사이므로 각각 한 단어로 센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이어 적힌 형태를 체언과 조사로 나눈 뒤 각 말의 기본 의미를 확인한다. 이름을 나타내면 명사, 체언 뒤에서 관계를 나타내면 조사, 동작을 나타내면 동사, 성질·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로 판별한다. 단어 수는 조사를 포함하되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합쳐서 센다.

암기 포인트

‘기픈’은 형용사, ‘그츨씨’는 동사이며, 조사는 단어 수에 포함된다.

NoteBase

문 7.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표시 없는 곳도 포함함.)

① 너는∨너∨대로∨나는∨나∨대로∨서로∨열심히∨일하자.

② 지금으로부터∨십여∨년∨전에∨이∨마을에∨사람이∨살았다.

③ 내가∨감당할만한∨능력이∨없는∨것을∨알게∨되자∨막내∨마저∨떠나는구나.

④ 비행시에는∨휴대 전화를∨사용하면∨안∨된다.∨이를∨어겼을 시에는∨처벌을∨받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사는 앞말에 붙이고, 단위를 나타내는 말과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로'가 체언 뒤에서 '각각의 방식에 따라'라는 뜻을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년'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말과 '시'처럼 때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된 상태에서 하나가 더 보태짐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대로'는 대명사 '너', '나' 뒤에 붙은 조사이므로 '너 대로', '나 대로'가 잘못되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열심히 일하자.'로 써야 한다.
② O — '십여'는 수사 '십'에 '그 수를 넘는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여'가 붙은 말이므로 붙여 쓰고, 단위를 나타내는 '년'은 띄어 쓴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이 마을에 사람이 살았다.'의 띄어쓰기가 적절하다.
③ X — '마저'는 조사이므로 '막내 마저'가 잘못되었다.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막내마저 떠나는구나.'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보조 용언 '만하다'는 '감당할 만한'처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당할만한'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④ X — 때를 나타내는 '시'는 의존 명사이므로 '비행시에는'이 잘못되었다. '비행 시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처벌을 받는다.'로 써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대로'를 언제나 의존 명사로 보아 띄기 쉽고, ③에서는 조사 '마저'를 별개의 단어처럼 띄기 쉽다. ④는 같은 문장 안의 '비행시'와 '어겼을 시'를 다르게 적어 놓아, 때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시'의 띄어쓰기를 일관되게 판단하는지가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체언 뒤의 '대로·마저'가 조사로 쓰였는지 먼저 확인해 앞말에 붙인다. 수량 뒤의 단위 명사와 관형어 뒤에서 때를 나타내는 '시'는 앞말과 띄어 쓴다. 보조 용언은 띄어쓰기가 원칙이되 일부 구성은 붙여쓰기도 허용된다는 점까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너대로·나대로·막내마저는 붙이고, 십여 년·비행 시·어겼을 시는 띄어 쓴다.

NoteBase

문 8. 다음 단어의 로마자 표기나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은?

① 묵호: Mukko

② 알약: allrak

③ standard: 스탠다드

④ Teletype: 텔레타이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는 발음과 표기상의 예외를, 외래어 표기에서는 원어의 발음에 따른 한글 표준 표기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마자 표기: 국어의 표준 발음을 기본으로 하되, 체언에서 받침 ㄱ·ㄷ·ㅂ 뒤에 ㅎ이 올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 것과 같은 예외를 적용한다.
외래어 표기: 원어의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옮기며, 관용적으로 흔히 쓰는 표기와 표준 표기가 다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묵호: Mukko’가 잘못되었다. 체언인 ‘묵호’는 받침 ㄱ 뒤의 ㅎ을 밝혀 적으므로 ‘Mukho’로 표기한다.

② X
‘알약: allrak’이 잘못되었다. ‘알약’은 ㄴ 첨가와 유음화를 거쳐 [알략]으로 발음되며, 이 발음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여 ‘allyak’으로 적는다.

③ X
‘standard: 스탠다드’가 잘못되었다. ‘standard’의 외래어 표준 표기는 ‘스탠더드’이다.

④ O
‘Teletype’의 외래어 표준 표기는 ‘텔레타이프’이므로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실제 발음 [무코]만 좇아 ㅎ을 없애거나 된소리처럼 적기 쉽고, ②는 [알략]의 음운 변화를 잘못 옮기기 쉽다. ③은 일상에서 자주 들리는 ‘스탠다드’와 규범 표기 ‘스탠더드’를 혼동하게 만든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로마자 표기는 먼저 표준 발음을 확인한 뒤 형태를 밝혀 적는 예외가 있는지 살핀다. 외래어 표기는 익숙한 발음이 아니라 규범상 표준 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묵호는 Mukho, 알약은 allyak, standard는 스탠더드, Teletype은 텔레타이프이다.

NoteBase

문 9.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①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잘 생겼데?

② 우리는 매일 숙제가 왜 이리 많데?

③ 어제 보니 네 친구 공부 열심히 하데.

④ 친구들이 전해주길 그 영화가 아주 재미있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말할 때 쓰는 종결 어미 '-데'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는 '-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데'는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회상해 말할 때 쓴다. '-대'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로, 남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되물을 때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왜 그렇게 잘생겼데?'의 '-데'가 잘못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되묻는 뜻이므로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잘생겼대?'로 고쳐야 한다.

② X
'왜 이리 많데?'의 '-데'가 잘못되었다. 전해 들은 내용을 되묻는 표현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 숙제가 왜 이리 많대?'로 고쳐야 한다. 화자가 자신의 느낌을 직접 묻는 뜻이라면 '왜 이리 많지?'로 표현할 수 있다.

③ O
'어제 보니'는 화자가 친구가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경험을 나타낸다. 그 경험을 회상하여 전달하므로 '열심히 하데'의 '-데'가 올바르게 쓰였다.

④ X
'재미있데'의 '-데'가 잘못되었다. '친구들이 전해주길'은 남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한다는 뜻이므로 '그 영화가 아주 재미있대'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데'와 '-대'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정보의 출처가 다르다. 특히 ④의 '친구들이 전해주길'처럼 전달의 단서가 있으면 직접 경험을 나타내는 '-데'가 아니라 '-다고 해'의 준말인 '-대'가 쓰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속 정보가 화자의 직접 경험이면 '-데', 남에게 들은 말의 전달이면 '-대'로 판단한다. '보니'는 직접 경험의 단서이고, '전해주길'은 전언의 단서이다.

암기 포인트

내가 보니 '-데', 남이 그렇다고 해 '-대'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중 표준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는 나에게 돈을 맡기고[마끼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② 그는 이 문서를 통해서 세상에 진실을 밝혔다[발켠따].

③ 바닷가에 도착한 아이들은 모두 아홉이 아닌 여덟이다[여덜비다].

④ 그녀는 그만둘지언정[그만둘찌언정] 우리에게는 일을 하도록 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받침의 대표음, 겹받침의 연음, 자음의 축약과 된소리되기를 적용하여 표준 발음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받침 ㅌ은 음절 끝에서 대표음 [ㄷ]으로 발음된다. 이 [ㄷ] 뒤의 예사소리 ㄱ은 [ㄲ]으로 된소리 나므로 '맡기고'는 [맏끼고]로 발음된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어미·접미사와 결합하면 뒤 자음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받침 자음과 ㅎ이 만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기도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맡기고[마끼고]'에서 [마끼고]가 틀렸다. 받침 ㅌ은 [ㄷ]으로 바뀌고 뒤의 ㄱ은 된소리가 되므로 올바른 발음은 [맏끼고]이다.
② O — '밝혔다'에서는 겹받침 ㄺ의 ㄱ과 뒤의 ㅎ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고 ㄹ은 남는다. 이어 받침 ㅆ은 [ㄷ]으로, 뒤의 ㄷ은 된소리 [ㄸ]으로 발음되어 [발켠따]가 된다.
③ O — '여덟이다'는 겹받침 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이어진다. ㄹ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남고 ㅂ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여덜비다]가 된다.
④ O — '그만둘지언정'에서는 ㄹ 뒤의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발음되므로 [그만둘찌언정]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 ㅌ이 뒤 음절로 연음된다고 보거나 아예 탈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뒤 음절이 자음 ㄱ으로 시작하므로 ㅌ은 연음되지 않고 음절 끝 대표음 [ㄷ]으로 남으며, 그 뒤의 ㄱ만 [ㄲ]으로 된소리 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받침 뒤가 모음인지 자음인지 확인한다. 모음이면 연음 가능성을 살피고, 자음이면 받침의 대표음이나 겹받침 발음부터 확정한 뒤 축약·된소리되기 같은 후속 변동을 차례로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맡기고는 ㅌ→[ㄷ], ㄱ→[ㄲ]이므로 [맏끼고]이다.

NoteBase

문 11. (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 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玉洋木)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감발을 하였는데 짚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찻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 말도 곧잘 철철 대이거니와 중국 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중략)

"이야기를 다하면 무얼 하는기오."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 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나) 볏섬이나 나는 전토(田土)는 / 신작로(新作路)가 되고요ㅡ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 감옥소로 가고요ㅡ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 공동묘지 가고요ㅡ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 유곽으로 가고요ㅡ

① 서술자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며 독자와의 거리는 멀다.
② 서술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제시하며 독자와의 거리는 가깝다.
③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진행하며 인물과의 거리는 멀다.
④ 서술자는 외부 관찰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전달하며 인물과의 거리는 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서술 방식이 독자와 중심인물 사이의 거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다.

NoteBase

핵심 개념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중심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술자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은 직접 말할 수 있지만 중심인물의 내면은 직접 알 수 없으므로, 독자와 중심인물 사이의 거리는 비교적 멀다. (가)의 '나'도 '그'의 옷차림, 말과 행동, 표정 등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서술자 '나'는 '그'의 기모노, 저고리, 중국식 바지, 감발과 짚신 등 외양을 자세히 묘사한다. '그'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지 않으므로 독자와 중심인물인 '그'의 거리는 멀다.
② X — 틀린 표현은 '주인공의 심리를 제시하며 독자와의 거리는 가깝다'이다. 서술자는 '나 또한 … 쓴물이 났다'처럼 자신의 심리는 드러내지만 '그'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지는 않는다. 올바르게는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제시하며,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는 가깝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진행한다'이다. '나'는 '그'와 대화하고 술을 마시는 참여자이지만, 중심인물 '그'의 삶을 관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올바르게는 '서술자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중심인물의 사연을 전달한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외부 관찰자의 시각'이다. (가)의 서술자는 작품 밖의 제삼자가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이다. 올바르게는 '작품 속 인물인 1인칭 관찰자의 시각으로 사건을 전달하며, 독자와 중심인물의 거리는 멀다'이다.

오답 포인트

'나'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 말한다는 사실을 '그'의 심리까지 안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또한 '나'가 대화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심 사건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자가 작품 속의 '나'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관찰하여 전하는지 구분한다. 다른 인물의 외양·말·행동만 제시하고 그 내면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며, 독자와 중심인물의 거리는 멀다.

암기 포인트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는 등장하고, 중심인물은 관찰한다'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2.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 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玉洋木)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감발을 하였는데 짚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찻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 말도 곧잘 철철 대이거니와 중국 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중략)

"이야기를 다하면 무얼 하는기오."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 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나) 볏섬이나 나는 전토(田土)는 / 신작로(新作路)가 되고요ㅡ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 감옥소로 가고요ㅡ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 공동묘지 가고요ㅡ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 유곽으로 가고요ㅡ

① 당대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민요 가락을 빌어왔다.
② 이 소설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③ 미개발된 농토를 개발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④ 비판적 지식인을 탄압하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이 드러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나)의 민요조 형식과 각 구절이 드러내는 일제 강점기 현실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나)는 비슷한 문장 구조와 '-고요'라는 어미를 반복하는 민요조 노래이다. 생산적인 농토가 신작로가 되고, 발언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며, 노인과 여성이 각각 공동묘지와 유곽으로 내몰리는 모습을 나란히 제시하여 당대 민중의 삶이 파괴된 현실을 풍자적으로 압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처럼 비슷한 구조와 '-고요'를 반복하는 민요 가락을 활용하여 당대의 비참한 현실을 풍자한다.
② O — 농토의 상실, 발언하는 사람의 투옥, 노인의 죽음, 여성의 유곽 유입을 짧은 노래에 집약하여 작품의 현실 비판적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③ X — 틀린 표현은 '미개발된 농토를 개발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이다. '볏섬이나 나는 전토'는 이미 곡식을 생산하는 농토이며, 그것이 신작로가 되었다는 말은 식민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올바르게는 '생산적인 농토가 신작로로 바뀌어 민중이 삶의 터전을 잃는 부정적 현실이 나타난다'이다.
④ O —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라는 구절은 현실에 관해 발언하는 비판적 지식인이 탄압받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을 드러낸다.

오답 포인트

③은 '신작로'를 근대화와 개발의 상징으로만 읽게 하는 함정이다. 그러나 '볏섬이나 나는 전토'가 신작로가 된다는 표현은 개발의 희망이 아니라 생산 기반과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식민지 현실을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어 하나의 일반적 이미지만 보지 않고, 앞뒤 구절의 정서와 반복되는 사건이 모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함께 확인한다. (나)의 사건들은 감옥소·공동묘지·유곽으로 이어지므로 '신작로' 역시 미래지향적 발전이 아니라 수탈과 삶의 파괴를 나타낸다.

암기 포인트

민요조 반복은 현실 풍자를 강화하고, 전토에서 신작로로의 변화는 발전이 아니라 삶의 터전 상실을 뜻한다.

NoteBase

문 13. 이 시의 주된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녯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①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니 끼인 제,
사공(沙工)은 어듸 가고 뷘 비만 미엿ᄂᆞᆫ고.
석양(夕陽)에 ᄲᅡᆨ 일흔 ᄀᆞᆯ며기ᄂᆞᆫ 오락가락 ᄒᆞ노매.

② 집방석(方席) 내지 마라, 낙엽(落葉)엔들 못 안즈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ᄃᆞᆯ 도다온다.
아히야 박주산채(薄酒山菜)ㄹ망졍 업다 말고 내여라.

③ 두터비 ᄑᆞ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ᄃᆞ라 안자
것넌 산(山) ᄇᆞ라보니 백송골(白松鶻)이 떠 잇거ᄂᆞᆯ 가슴이 금즉ᄒᆞ여 풀덕 뛰여 내ᄃᆞᆺ다가 두험 아래 쟛바지거고
모쳐라 ᄂᆞᆯ낸 낼싀만졍 에헐질 번 ᄒᆞ괘라.

④ 댁(宅)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화 그 무엇이라 웨는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 후행(前行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아스슥 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정서를 파악하고, 각 선지의 시적 상황과 정조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된 정서는 작품 전체의 상황과 시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중심 감정이다. 이 시는 남편과 딸을 잃고 여승이 된 여인의 비극적 삶을 제시하며, ‘쓸쓸한 낯’, ‘차게 울었다’, ‘십 년이 갔다’, ‘슬픈 날’, ‘눈물방울’ 등의 표현을 통해 깊은 슬픔과 연민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비 내리는 연못과 안개 낀 버드나무, 사공 없는 빈 배, 짝 잃은 갈매기라는 쓸쓸한 풍경이 외로움과 슬픔을 드러낸다. 비극적 삶을 바라보는 이 시의 애상적 정서와 가장 유사하다.
② X — 낙엽을 방석으로 삼고 달빛을 등불로 여기며 소박한 술과 산나물을 즐기는 태도이므로, 슬픔이 아니라 자연 속의 소박한 풍류와 만족감을 드러낸다. '애상적 정서'가 아니라 '안분지족의 여유와 풍류'로 고쳐야 한다.
③ X — 산과 폭포의 크고 힘찬 모습을 묘사하여 자연의 웅장함과 그에 대한 감탄을 드러낸다. '슬픔과 연민'이 아니라 '자연을 마주한 호방한 흥취와 감탄'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게젓을 어렵고 과장된 한자어로 외치는 장사꾼에게 그냥 게젓이라고 하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언어의 과장과 허세를 익살스럽게 드러낸다. '애상적 정서'가 아니라 '해학적·풍자적 정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고전 시가라는 형식이나 자연물이 등장한다는 공통점만 보고 정서를 판단하면 안 된다. ②의 달과 낙엽은 풍류의 배경이고, ③의 산과 폭포는 감탄의 대상이며, ④의 과장된 말은 웃음을 만드는 장치이다. ①의 '빈 배'와 '짝 잃은 갈매기'만이 이 시의 상실감과 쓸쓸함에 대응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처지와 결말을 먼저 확인한 뒤, 반복되는 감정어와 핵심 이미지가 만드는 분위기를 잡는다. 다음으로 각 선지에서 같은 정서를 만드는 구체적 시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여승의 비극적 삶은 슬픔·연민, 빈 배와 짝 잃은 갈매기는 쓸쓸함·상실감이다.

NoteBase

문 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녯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① ㉠: 쓸쓸했던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② ㉡: 여인의 힘겨운 삶을 공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③ ㉢: 부지런한 남편을 원망하는 여인의 심리가 드러난다.
④ ㉣: 여인의 슬픈 감정을 산꿩에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시구에 쓰인 감각적 표현과 정서 표현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특히 시적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심리를 임의로 덧붙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핵심 개념

공감각적 표현은 한 감각을 다른 감각의 말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감정 이입은 화자나 인물의 감정을 자연물에 옮겨 그 자연물도 같은 감정을 지닌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인물의 심리는 시구에 드러난 행동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쓸쓸한 낯이 녯날같이 늙었다’는 현재의 여승에게서 예전의 쓸쓸한 인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② O — ‘울었다’는 청각적 현상인데 이를 ‘차게’라는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는 여인의 고단하고 슬픈 삶을 공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부지런한 남편을 원망하는’이다.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에는 떠난 남편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여인의 그리움과 한이 드러날 뿐, 남편의 부지런함이나 그를 원망하는 심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십 년 동안 기다린 여인의 그리움과 한이 드러난다’이다.
④ O — ‘산꿩도 설게 울은’은 여인의 슬픔을 산꿩의 울음에 옮겨 표현한 것이다. 자연물인 산꿩에 인물의 슬픈 감정을 이입하였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섭벌같이 나아간’을 근거로 남편을 부지런하다고 해석한 뒤, 그에 대한 원망까지 덧붙이게 만드는 선지이다. 그러나 시구에서 직접 확인되는 핵심은 남편의 성격이 아니라 십 년 동안 이어진 여인의 기다림과 남편의 부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법 문항에서는 먼저 시구의 감각 전이, 자연물과 인물의 정서 대응, 인물의 행동을 확인한다. 그다음 선지의 심리나 태도가 시구에 실제로 드러나는지 대조하면, 근거 없이 ‘원망’ 같은 감정을 추가한 선지를 가려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차게 울었다’는 청각의 촉각화, ‘산꿩도 설게 울은’은 감정 이입, ‘십 년을 기다림’은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과 한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보기>의 고사와 관련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당나라 현종은 재위 초기에는 정치를 잘하여 칭송을 받았으나 점점 주색에 빠져 정사를 멀리했다. 이임보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황제의 비위를 맞추면서 충신들의 간언이나 백성들의 탄원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며 조정을 떡 주무르듯 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나 아닌지 두려워하며 가차없이 제거했다. 그것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한 강한 수법은 쓰지 않고 황제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얼굴로 상대를 한껏 추켜세워 자리에 앉혀 놓은 다음, 음모를 꾸며 떨어뜨리는 수법을 썼다. 이임보가 깊은 생각에 잠긴 다음 날은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는 자가 반드시 생겼다.

① 勸上搖木
② 蚌鷸之爭
③ 羊頭狗肉
④ 綿裏藏針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임보의 겉과 속이 다른 태도와 음험한 술수를 보여 주는 고사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지문의 핵심은 겉으로는 상대를 추켜세우면서 속으로는 해칠 음모를 꾸민다는 데 있다.

핵심 개념

지문의 고사는 구밀복검(口蜜腹劍), 곧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는다는 말과 연결된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품는 표리부동하고 음험한 태도를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권상요목(勸上搖木)은 남을 나무에 오르도록 부추긴 뒤 그 나무를 흔든다는 뜻이다. 상대를 추켜세워 높은 자리에 앉힌 다음 음모를 꾸며 떨어뜨린 이임보의 수법과 관련된다.
② X — 방휼지쟁(蚌鷸之爭)은 조개와 도요새가 다투는 사이에 어부가 둘을 모두 잡았다는 고사로, 두 사람이 다투는 틈을 타 제삼자가 이익을 얻는 상황을 뜻한다. 지문에는 두 당사자의 다툼과 제삼자의 이익이라는 구조가 없으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올바르게는 방휼지쟁이 아니라 겉으로 상대를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해칠 생각을 품는 구밀복검과 같은 성어가 지문에 직접 대응한다.
③ O —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서로 다른 행동을 가리킨다. 황제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얼굴을 보이면서 뒤로는 충신을 제거한 이임보의 이중성과 관련된다.
④ O — 면리장침(綿裏藏針)은 솜 속에 바늘을 감춘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악의나 공격성을 품은 태도를 가리킨다. 강한 수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추켜세운 뒤 몰래 제거한 이임보의 모습과 관련된다.

오답 포인트

②도 다툼이나 계략과 관련된 성어처럼 보여 고를 수 있지만, 핵심 의미는 '두 사람의 다툼으로 제삼자가 이익을 얻음'이다. 지문의 초점은 경쟁자의 다툼이 아니라 이임보가 겉으로 호의를 보이고 뒤로 상대를 제거하는 표리부동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사 성어 문제에서는 이야기의 핵심 관계를 먼저 잡는다. '겉으로 추켜세움 → 뒤로 음모를 꾸밈 → 상대를 제거함'은 겉과 속의 불일치와 은밀한 해침에 해당한다. 반면 '둘의 다툼 → 제삼자의 이익'이 있어야 방휼지쟁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구밀복검은 입에는 꿀, 뱃속에는 칼이다. 방휼지쟁은 조개와 도요새가 싸우고 어부가 이익을 얻는 상황이다.

NoteBase

문 16.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님 온다 / 형님 온다 / 분고개로 /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떱뎁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찧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뾰족새요,
시아지비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샐세.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 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붙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겼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① 후렴이 없는 4음보 연속체 민요이다.

② 고된 시집살이를 익살과 해학으로 표현했다.

③ 과장, 대구, 은유, 언어유희의 표현기법이 쓰였다.

④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려 자기 반성적 태도가 나타난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민요 「시집살이 노래」의 형식, 표현 기법, 정서와 화자의 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집살이 노래」는 시집살이의 고통을 여성의 목소리로 드러낸 민요이다. 후렴 없이 4음보가 이어지는 연속체 형식이며, 과장·대구·은유·언어유희와 익살·해학을 통해 고된 현실과 시집 식구들을 비판적으로 그린다.
화자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억압하는 시집살이의 현실을 한탄하고 풍자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일정한 후렴구가 없고, 4음보의 율격이 여러 행에 걸쳐 계속되는 연속체 민요이다.
② O — '시집살이 개집살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처럼 고통을 재치 있게 빗대어 익살과 해학을 드러낸다.
③ O — '오 리 물', '십 리 방아', '아홉 솥', '열두 방'에는 과장이, 짝을 이룬 문장 구조에는 대구가 나타난다. 시집 식구들을 '호랑새', '꾸중새' 등에 빗댄 부분에는 은유가, '맵다'와 '소(沼)'의 뜻을 겹쳐 활용한 부분에는 언어유희가 쓰였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자기 반성적 태도'이다. 화자는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려 시집살이의 고통을 한탄하고 시집 식구들과 억압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가 나타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앞부분인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려'는 적절하지만, 이를 곧바로 '자기 반성적 태도'와 연결한 것이 함정이다. 풍자의 대상이 화자 자신인지 시집 식구들과 시집살이의 현실인지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자의 태도를 묻는 선지는 먼저 비판이나 풍자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치려는 내용이 있어야 자기 반성적 태도이며, 외부 대상의 횡포와 고통을 드러내면 비판적·한탄적 태도이다.

암기 포인트

「시집살이 노래」는 후렴 없는 4음보 연속체이며, 익살과 해학으로 시집살이의 고통을 풍자한다. 자기반성이 아니라 현실 비판이다.

NoteBase

문 17. 이 노래를 연극으로 각색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님 온다 / 형님 온다 / 분고개로 /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떱뎁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찧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뾰족새요,
시아지비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샐세.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 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붙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겼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① 시집간 형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동생의 모습
② 둥글게 생긴 작은 밥상에 어렵게 상차림을 하는 모습
③ 울고 있는 여인 뒤에서 몰래 다독여 주는 남편의 모습
④ 뻣뻣한 머리칼을 만지며 결혼 전 자신을 상상하는 모습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노래의 구체적 표현과 인물의 처지를 바탕으로 연극의 장면이 원문의 정서와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노래는 시집살이의 고된 노동과 시집 식구들의 냉대 때문에 쇠약해지고 외로워진 여인의 한을 드러낸다. 연극으로 각색할 때에는 원문에 제시된 행동과 비유를 무대 동작으로 바꾸되, 남편까지 여인을 괴롭히거나 외면하는 상황을 다정한 관계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첫머리의 '형님 온다'와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에는 시집간 형님을 맞으러 가려는 동생의 반가움이 나타나므로 적절하다.
② O —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는 작고 둥근 소반에 수저를 놓는 일조차 어렵다는 하소연이므로, 둥근 작은 밥상에 힘겹게 상을 차리는 장면은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몰래 다독여 주는 남편'이다. 원문은 남편을 '미련새'라고 부르고 여인이 혼자 울어 '베갯머리 소 이겼네'라고 할 만큼 외로운 처지를 드러낼 뿐, 남편이 위로하는 모습은 제시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여인이 홀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나, 쌍을 이룬 거위와 오리를 보며 자신의 외로움이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④ O —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는 시집오기 전 숱 많고 고왔던 머리가 거칠고 초라하게 변했음을 뜻한다. 현재의 뻣뻣한 머리칼을 만지며 결혼 전 모습을 떠올리는 장면은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살리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마지막의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에서 '쌍'만 보고 남편의 위로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거위와 오리의 다정한 짝은 여인의 부부 관계를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받지 못하는 여인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대비 장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색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장면의 세부 동작이 원문의 시어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그 장면이 화자의 처지와 작품의 중심 정서를 바꾸지 않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 노래의 핵심 정서는 고된 시집살이의 한과 고립감이며, 쌍을 이룬 거위와 오리는 남편의 위로가 아니라 여인의 외로움을 강조한다.

NoteBase

문 18. 이 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의 디지털 문명은 로마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로마자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글처럼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문자 중에서 디지털 문명에 가장 잘 적응하는 문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글이 디지털 문명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편리한 문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정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타자기 시대에 한글은 한자나 가나와 같은 음절 문자보다 기계화에 ㉡유리한 점이 분명 있었지만 '모아쓰기'라는 ㉢창제 당시의 표기법 때문에 로마자 타자기의 효율성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풀어쓰기' 주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병아리'를 'ㅂㅕㅇㅏㄹㅣ'로 풀어 쓰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국 디지털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아쓰기'를 자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로마자는 유리하다.

② 한국은 한글을 통해 세계적인 정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

③ 풀어쓰기는 모아쓰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④ 모아쓰기를 구현하는 기술이 생기면서 풀어쓰기 주장은 사라졌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글의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의 관계를 글에 제시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모아쓰기는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한데 모아 적는 방식이고, 풀어쓰기는 자음과 모음을 로마자처럼 가로로 이어 적는 방식이다. 타자기 시대의 풀어쓰기 주장은 모아쓰기의 장점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모아쓰기 때문에 생긴 기계화의 비효율을 극복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아쓰기를 자동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풀어쓰기 주장은 사라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의 첫 부분에서 현대 디지털 문명이 로마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로마자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유리하다고 직접 설명한다.
② O. 글은 한글이 디지털 문명에 잘 적응하는 편리한 문자이므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정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토대가 된다고 설명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모아쓰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이다. 풀어쓰기는 타자기 시대에 모아쓰기로는 로마자 타자기의 효율성을 따라가기 어려웠던 문제를 극복하려는 주장이었다. 올바르게는 '풀어쓰기는 모아쓰기에서 비롯된 기계화의 비효율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이다.
④ O. 글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아쓰기를 자동 구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풀어쓰기 주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풀어쓰기가 등장한 목적을 반대로 바꾼 선지이다. 풀어쓰기는 모아쓰기의 장점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아니라 당시 모아쓰기의 기계화상 약점을 피하려는 방안이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장의 등장 배경과 소멸 원인을 각각 찾는다. 이 글에서는 '모아쓰기의 타자기상 비효율 → 풀어쓰기 주장 등장', '모아쓰기의 자동 구현 가능 → 풀어쓰기 주장 소멸'의 인과관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타자기의 한계는 풀어쓰기를 낳았고, 컴퓨터의 자동 구현은 모아쓰기를 살렸다.

NoteBase

문 19. ㉠~㉣을 한자로 표기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의 디지털 문명은 로마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로마자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글처럼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문자 중에서 디지털 문명에 가장 잘 적응하는 문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글이 디지털 문명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편리한 문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정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타자기 시대에 한글은 한자나 가나와 같은 음절 문자보다 기계화에 ㉡유리한 점이 분명 있었지만 '모아쓰기'라는 ㉢창제 당시의 표기법 때문에 로마자 타자기의 효율성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풀어쓰기' 주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병아리'를 'ㅂㅕㅇㅏㄹㅣ'로 풀어 쓰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국 디지털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아쓰기'를 자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① ㉠: 碁盤
② ㉡: 有利
③ ㉢: 唱題
④ ㉣: 俱現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쓰인 '기반, 유리, 창제, 구현'의 뜻을 바탕으로 각 단어의 정확한 한자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반은 '터 기(基), 소반 반(盤)'을 써서 基盤, 유리는 '있을 유(有), 이로울 리(利)'를 써서 有利이다. 창제는 '비롯할 창(創), 지을 제(製)'를 써서 創製, 구현은 '갖출 구(具), 나타날 현(現)'을 써서 具現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원문의 碁盤에서 틀린 글자는 碁이다. 碁는 '바둑 기'이므로 '기반'의 뜻과 맞지 않으며, 올바른 표기는 基盤이다.
② O. 有는 '있다', 利는 '이롭다'라는 뜻이므로 '조건이나 형편이 좋다'는 뜻의 유리를 정확히 적은 有利가 맞다.
③ X. 唱題는 '창제'의 표기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처음으로 만들어 내다'라는 뜻의 創製이다.
④ X. 俱現에서 틀린 글자는 俱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다'라는 뜻의 구현은 갖출 구(具)를 사용한 具現으로 적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碁와 基, ④의 俱와 具처럼 모양이나 음이 비슷한 한자를 바꾸어 놓은 것이 핵심 함정이다. 한글 음만 맞추지 말고 단어의 뜻과 각 한자의 훈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단어의 문맥상 뜻을 먼저 확정한 뒤 한자 하나씩 훈을 대입한다. 한 글자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해당 선지를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기반은 基盤, 유리는 有利, 창제는 創製, 구현은 具現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상 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사람이뇨 귀신이뇨? 날김생 길 버러지도 못 들어오는 곳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데서 왔느뇨?” “나는 국왕마마의 세자로서 부모 봉양 왔나이다.” “부모 봉양 왔으면은 물값 가지고 왔소? 나뭇값 가지고 왔소?” “총망 길에 잊었나이다.” “물 삼 년 길어 주소, 불 삼 년 때어 주소, 나무 삼 년 베어 주소.” 석 삼 년 아홉 해를 살고 나니 무상 신선 하는 말이, “그대가 앞으로 보면 여자의 몸이 되어 보이고 뒤로 보면 국왕의 몸이 되어 보이니, 그대하고 나하고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어 일곱 아들 산전바더주고 가면 어떠하뇨?” “그도 부모 봉양할 수 있다면은 그리하성이다.”

① 윤똑똑이

② 트레바리

③ 오그랑이

④ 만수받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고유어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다.
여주인공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무상 신선의 거듭된 고된 요구를 싫증 내거나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핵심 개념

만수받이는 아주 귀찮게 구는 말이나 행동을 싫증 내지 않고 잘 받아 주는 일을 뜻한다. 이 문맥에서는 물 긷기·불 때기·나무 베기를 각각 삼 년씩 하고 혼인하여 일곱 아들을 낳아 달라는 요구까지 수용하는 여주인공의 인내와 포용성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윤똑똑이’는 자기만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여주인공에게는 잘난 체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윤똑똑이’는 ‘만수받이’로 고쳐야 한다.
② X — ‘트레바리’는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하는 성격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 여주인공은 무상 신선의 요구에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이므로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트레바리’는 ‘만수받이’로 고쳐야 한다.
③ X — ‘오그랑이’는 마음씨가 바르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부모를 봉양하려고 고된 요구를 감수하는 여주인공에게서 비뚤어진 마음씨는 드러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오그랑이’는 ‘만수받이’로 고쳐야 한다.
④ O — ‘만수받이’는 귀찮게 구는 말이나 행동을 싫증 내지 않고 잘 받아 주는 일을 뜻한다. 여주인공이 부모 봉양을 위해 무상 신선의 여러 요구를 모두 감내하는 모습과 정확히 부합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여주인공이 낯선 곳까지 찾아오고 오랜 노동을 견딘다는 점만 보고 영리함이나 강인함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선지는 일반적인 성격 평가가 아니라 낯선 고유어의 정확한 뜻을 묻는다. 반복되는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 주는 행동이 '만수받이'의 결정적 근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성격 어휘 문제에서는 먼저 본문에서 반복되는 행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뒤 선지의 사전적 의미와 대조한다. 이 작품에서는 '까다롭고 고된 요구를 싫증 내지 않고 계속 받아 줌'이 핵심이므로 '만수받이'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윤똑똑이는 잘난 체, 트레바리는 까닭 없는 반대, 오그랑이는 비뚤어진 마음씨, 만수받이는 싫증 없이 받아 줌이다.

NoteBase